

RI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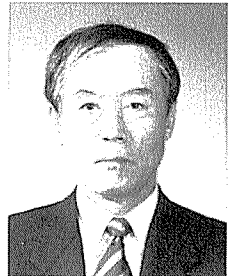
2004년 1월호 통권 제85호 발행인:한영성 편집: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주소: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도시개발공사빌딩 전화:02)3411-6494~6(대) FAX:445-1014 비매품

새해 맞이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회장이란 중책을 맡은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서게 되니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연상됩니다. 잘한일 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 약속드린 대로 기존의 꾀감은 빼먹지 않았으며, 대신 7줄을 보냈습니다. 한·일·중 협회간 회의(CJK Congress)를 발의하여 제 궤도에 진입시켰고, 우리 협회사에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첫 실마리를 열었습니다. 이 모두 회원님들의 열의에 찬 지원,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가능했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밖으로는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SARS 확산, 안으로는 새정부 출범, 부안 사태 등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우리 RI업계도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지만 회원가족 여러분의 슬기와 땀으로 이 고비를 넘겼고, 그래서 다시금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협회는 금년을 「RI 이용진흥 진일보의 해」로 삼아 우선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를 발족시키고, 권역별싸이클로트론 연계한 RI유통지원, 세계동위원소대회(ICI)의 국내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내년이면 우리 협회가 2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성년 협회로 당당히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가족 여러분의 구심체로서 당 협회가 소기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잘 못할 때는 회초리를, 잘할 시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각 데에 안녕과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마음모아 기원 드립니다.

2004. 1. 2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한영성**